

시연施連칼럼

# 매화는 조선 선비의 정신



권오신  
칼럼니스트, 은곡서원 위원장

서편제 가락처럼 지리산(智異山) 자락 섬진강(鱗津江) 흐르는 곳에는 백매(白梅) 청매(青梅)가 보름 넘게 향기를 내 뿜더니 어느 사이 구례는 산길은 빗꽃에 덮여버려 매화를 보러오는 나그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만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보름이나 빨리 피었다.

조선(朝鮮)의 선비들은 100가지 꽃 중에서 극상품으로 여긴 꽃이 바로 매화다.

우리나라는 원래 분재(盆栽)가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매화 만큼은 예외여서 이때쯤이면 사기 화분에 담은 분매(盆梅)를 동접(同接)이나 문우(文友)들에게 선물했다. 매화는 한사(寒士)를 상징하는 꽃이어서 그림자 어려운 처지에 있던 선비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다.

조선(朝鮮)에서는 꽃의 아름다움보다 품격을 더 따진 것 같다. 세종(世宗) 때 시서화(詩書畵)의 삼절(三絶)로 이름난 강희안(姜希顔)은 꽃을 정일품(正一品)에서 정구품(正九品)으로 나누고 매화와 국화 연꽃을 일품으로 쳤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실학자 저술가)의 하피첩(霞峽帖)에 얽힌 매조도(梅鳥圖) 얘기도 유명하다.

포항(浦項) 장기에서 강진으로 이배(移配) 10년째를 맞은 다산(茶山)에게 그의 아내 흥 부인이 시집을 때 입었던 붉은색 한 치마 다섯 폭을 보냈다. 병을 앓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린 다산(茶山)은 차마를 화첩(畵帖) 크기로 잘라 4 점을 만들고는 먼저 두 아들에 대한 당부의 글을 썼다.

삼년 뒤(1813년 7월 13일) 시집가는 외동딸에게 남은 차마폭을 꺼내어서 매화에 맺새 두 마리를 그려 넣고 시(詩) 한 수까지 남겼다.

매조도가 이름을 얻는 것은 딸을 향한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담겼기 때문이었을 것. 출고 배고프고 고독(孤獨)함을 달래기 위해서 긴 겨울을 밀어내는 매화를 보러 다산(茶山) 초당(草堂) 동암(東庵)을 수없이 드나들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매화를 아끼기로는 겨우 퇴계(退溪)를 따를 사람이 없을 듯하다. 퇴계는 매화가 피기 전 선달 조순(趙尊) 눈을 감으면서 “매화에 물을 주어야”는 유언(遺言)을 남겼

다. 생전에도 분매(盆梅)를 두고 ‘매형’, ‘매군’으로 각들이 부르고 청진(淸眞)한 매화를 소재로 한 한시(漢詩)를 통해 이(理)의 세계를 그렸다. 단양군수 시절 관기 두향과 매화에 얽힌 일화는 유명하다. 처신이 풀 먹인 안동포처럼 뽕뽕했던 어린인지라 두향은 선생의 마음을 얻지 못해 애간장이 녹아났을 것이다.

마침내 조선(朝鮮) 천지를 뒤져 고매 한그루를 찾아내어서 선생에게 바쳤다고 하는데 마음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동헌(東軒) 뜰에다 심어두고 틈날 때마다 관매(觀梅)를 했다고 전해진다.

선생이 과만해서 새 임지로 떠난 뒤에는 도산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단양에 홀로 남았던 두향은 선생의 부음(訃音)을 듣고 바위에 앉은 채로 숨을 멈춰 버렸다는 전설(傳說) 같은 정절(貞節)이 매향처럼 아름답기만 하다.

단양 구담봉 맞은편 산자락에 써진 묘가 총주명 건설로 수물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는 얘기를 1995년 후손이었던 옛 동료(포항mbc PD)를 통해 들었다.



꽃이 피어도 기빠하지 말게나/ 꽃이 떨어져도 슬퍼할 것 없으라(화개역막희花落亦莫悲, 화개역막비花落亦莫悲, 이근李根) 일본도 시가집 만요슈(萬葉集)에 매화를 읊은 시가 120여 수, 빗꽃은 40여 수에 그쳤다. 매화는 사무라이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11세기에 들면서 빗꽃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중국(中國)은 매화에 대칭되는 꽃이 모란이다. 중국(中國)의 선비들도 매화와 모란은 정신과 물질, 성과 속, 은둔과 출세로 비유했다.

매화에 맞설 수 있는 꽃도 있다.

피는 시기가 매화를 뒤따르고 줄기를 꺾어 아무 곳에 심어도 지천으로 피어나는 천하고 천한 꽃 개나리다. 보릿고개 처절한 삶을 잘도 참고 살아온 민중(民衆)의 한(恨)이 녹아있기 때문일까. 조선의 민중문화(民衆文化)는 “절개면 다나 매화야” “부귀면 다나 목단야” 이 꽃저 꽃다 버리고 노란색 피워 마음 환하게 열어주는 개나리가 어찌나 고 짜잡아 묶어서 버리듯 봄을 보냈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34

# 용천연고(龍川聯稿)



권갑현 편집위원장

〈용천연고〉는 권순경(權舜經, 1676~1744)과 아우 권순기(權舜紀, 1679~1746) 및 아들 흠(1710~1748)의 시문집(詩文集)이다.

권순경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칙(聖則), 호는 무와(無窩)이다. 안동권씨 26세(世)로 동정공파(同正公派)이다. 부친은 권시창(權是昌, 1650~1707, 호 懸庵)이다.

권순기는 중부(仲父) 권시량(權是亮, 1659~1722, 호 止窩)에게 출계하였다. 자는 여칙(汝則), 호는 약계(藥溪)이다. 영릉참봉(英陵參奉)을 지냈다.

권씨의 자는 제능(梯能), 호는 오헌(梧軒)이다.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追贈)되었다. 안동시와 용면기(龍川)에 정려(旌闈)가 있다.

〈용천연고〉는 1863년에 5대손 권주신(權周新, 호 止齋, 1828~?)과 권호신(權虎新, 호 襄蓑, 1825~1892) 등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돈우(李敦禹, 1807~1884)가 1863년에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권1은 권순경의 〈무와고(無窩稿)〉로 시 11수, 서(書) 6편, 축문 9편, 제문 4편, 잡저 8편, 부록으로 묘갈명·행장·제문·양복시(往復書), 권2는 권순기의 〈약계고(藥溪稿)〉로 시 7수, 잡저 5편, 제문 3편, 부록으로 묘갈명·행장·차운시(次韻詩)·일기(日記), 권3은 권씨의 〈오헌고(梧軒稿)〉로서 시 13수, 제문 1편, 잡저 2편, 부록으로 행장·정문(正文)·전(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용천연고〉 제2권 잡저(雜著)에 실려 있는 〈부사중수기(府司重修記)〉를 국역한 것이다. 여기서 부사(府司)는 안동도호부의 관아(官衙)이며, 이 글은 당시 부사(府使)가 부사(府司)를 중수(重修)한 전후 사정을 기록한 것이다.

## 府司重修記(부사중수기)

안동부(安東府)의 관청인 부사(府司)는 곧 상호장(上戶長)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인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우리 삼태사(三太師)께서는 고려(高麗)에 공훈(功勳)이 있어, 안동부(安東府) 사람들이 그 덕(德)에 감화되어 그 업적을 잊지 못하여 관아에 사당(祠堂)을 세우고 호장(戶長)이 그 제사를 관장(管掌)하니, 대개 지금 태사(太師)의 혼령(魂靈)을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호장(戶長)이 직무를 수행하던 옛 부사(府司)이다.

돌이켜보건대 호장(戶長)은 아전의 우두머리로서, 아전들의 부정(不正)을 바로잡고, 관장(官長)의 잘잘못을 보살펴주며, 또한 백성들이 집집마다 관용(官用)으로 공급해주는 쌀나무와 풀을 총괄하였으니, 지금 관풍루(觀風樓) 곁에 날아갈 듯하며 탁 트인 것이 곧 그 부사(府司)이다.

해가 오래되어 집이 낡아 비바람에 씻기고 별레와 쥐에 훼손되어 무너지고 넘어져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매년 수

리(修理)하고 지붕을 거듭 이으려 했으나 또한 여러 아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기미년(己未年, 1739년)에 우리 부사(府使) 이공(李公)께서 안동부(安東府)에 부임하여 이듬해에 치적(治績)이 크게 이루어지고 폐지되었던 백(百) 가지를 모두 일으켰다. 독을 쌓는 일은 이미 완성하였고, 건물을 보수하고 창건하는 일도 또한 부지런히 하여 봉급(俸給)을 출연(出捐)하여 관청을 보수하니, 무릇 백(百) 칸이 넘었다. 그 사이에 또 대중(大衆)들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수리해야 하나 아직까지 착수(着手)하지 못한 것을 모두 보고하시오” 하여, 여러 아전(前)들이 부사(府使)에게 아뢰니 부사(府使)가 흔쾌히 말하기를 “이 부사(府司)를 어찌 보수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우두머리 목수에게 명령하여 그 옛날 것을 바꾸어 새롭게 하고, 그 좁은 것을 열어 젖혀 넓히며 따뜻한 곳은 방을 만들고 시원한 곳은 마루를 만들어 넓적하고 깨끗하게 하니, 제도(制度)의 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사치(奢侈)스럽게 되었는데, 한 달이 채 되지 못해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 그 모든 경비(經費)는 모두 우리 부사(府使)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 아전들은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며 역사(役事)에 응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아! 오직 우리 태사(太師)의 자손들이 일찍이 자원(自願)하여 호장(戶長)이 되고, 후에 호장(戶長)의 반열(班列)에 들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우리 태사(太師)의 후손들이다. 대대로 이 부사(府司)를 지켜서 진실로 지금에 이르렀으니, 그 법을 지키는 바름과 직분을 제공하는 신중함과 예의를 체득하는 엄격함이 진실로 또한 조정에서 관리들이 하는 거동(舉動)과 법도(法度)를 본받음이 있었다.

저 여러 고을에서 존경하고 흠모(欽慕)하는 것은 진실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 부사(府司)를 맡은 호장(戶長)은 정미한 뜻을 갖고 닦으며 후사(後嗣)라도 게으르거나 소홀하지 말고, 먼저 법도를 지키고 직분의 일을 삼가며 예의 체득을 엄격히 하여 청렴(淸廉)과 삼감으로써 아전들을 단속(團束)하고 공정(公正)하고 평등(平等)함으로써 백성들을 거느리니, 이것이 오직 옛날을 체득(體得)하여 아름다움을 물려주는 뜻인 것이요, 만약에 이것과 반대로 하여 사사로움을 요구하고 공적(公的)인 것을 없앤다면, 어찌 한갓 두세 사람의 수치(羞恥)일 뿐이겠는가? 문득 또한 여러 고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힘써야 할 책임은 먼저 제군(諸君)들에게 있고 후인들로 하여금 힘쓰게 하고 후인들로 하여금 거울삼게 하며 다시 후인들로 하여금 힘쓰게 하면 곧 우리 부사(府使)께서 특별히 은혜롭게 중수(重修)하신 성대한 뜻이 그 또한 천백세(千百世)토록 말이 있을 것이니 오직 제군(諸君)들은 힘쓰기를 바란다.

경신년(庚申年, 1740년) 6월 일에 생원(生員) 권순경(權舜經)은 기록하다

# 좌윤공파 연원燕院 정알레正謁禮

안동권씨 좌윤공파 정알레가 안동시 북후면 잣밭길 연원(燕院)에서 지난 24일 오전 11시 30여 명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행했다.

이날 알묘(謁廟)엔 권정창(權正昌, 대중회 제례위원장) 후손이 첫 잔을 올렸다.

좌윤공파 연원 성지엔 파시조 좌윤공(10世) 단소와 추밀공, 정랑공, 문과공, 영가군(永嘉郡, 14世), 고려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15世), 문정공(文靖公, 좌의정左議政 16世) 현령공(縣令公, 17世)과 연원재사(燕院齋舍)가 야(也)자형 산세에 둘러싸여 있다.

권오신 좌윤공파회장



# ‘안동권문의 좌윤공파 성지(聖地)인 연원재사(燕院齋舍)에서’

권기색(좌윤공파, 36世)

하늘은 더없이 고요하고, 이미 갑진년(甲辰年) 봄의 기운으로 대지가 촉촉한 2024.02.24. 정월 대보름날, 경북 안동시 잣밭길 39-27번지, 안동권문의 좌윤공파의 성지(聖地)인 연원재사(燕院齋舍)에 내 발걸음 닿는 순간, 내 숨통도 일시에 멈추었다.

멀고도 긴 걸음에다가, 첫걸음이기엔 떨리는 심정이 오죽했으랴! 처음 보는 순간! 이곳이야말로 송조(崇祖) 정신(精神)의 광명(光明)의 현장이 아니고선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싶다. 우리 선조의 빛나고 뚜렷한 일이 장엄하면서도 부드러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과연 자랑스럽도다.

보아라! 저 하늘 선(線)과 맞닿아 있는 지세가 은화하기에 그치지않다. 바깥의 양(兩) 산맥은 크게 활처럼 휘어 바람을 감싸 안는 듯하고, 안쪽의 두 산줄기는 이곳 터의 중심을 향한 예(禮)를 갖춘 형상이니, 산세(山勢)와 지세(地勢)가 서로 어울려 화합하니, 그 자연미(自然美)가 이미 극(極)에 달했는데, 연원재사의 품위 또한 이에 위만하지 아니하게 그 높이를 일마나 잡재웠는지 알만하다.

석축(石築) 또한 무식하게 우람하지 아니하게 땅을 후벼 파지 아니하여 천만다행이다 싶다. 여기에 덩달아 곳곳에 빼뜻빼뜻하게 세월을 이겨 낸 노송(老松)들이 그 나뉠의 운치를 더하고, 남쪽 하늘은 아예 활짝 열어 둔 채, 땅의 쓰임새 모두가 이렇듯 예술이다.

이곳이 바로 우리 안동권문의 좌윤공파의 성지인 연원재



권오신 좌윤공파회장(오른쪽)과 권기색 감성파키지 대표

사의 풍경이니, 우리의 송조정신의 광명이 이곳에서 비롯됨을 만천하에 밝힘이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런 풍경이 아니었는 터인데, 문중(門中) 일에 그야말로 심혈로 매진하시는 권오신 회장님의 노고에 어찌 말로 다하랴 싶다.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의 온기가 넘쳐흐른다. 이에 답하듯 파조(派祖) 좌윤공(佐尹公)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그 위세가 가히 뒤러서 넘볼 것인가 싶다. 마치 날개를 단 듯한 송조정신을 한껏 일깨운다 싶다.

도포(道袍) 차림의 문중 어른들과 함께 좌윤공 할아버지

의 단소(壇所) 주위를 한 바퀴 먼저 돌고서부터 서열에 따라 정초(正初) 알묘(謁廟)의 예(禮)를 올림에 이보다 더한 송조의 실천 행위가 어디에 또 있으랴 싶다. 가슴이 뭉클해 집은 뜨거운 피의 흐름을 직감하는 것이며, 내 피의 근원에 대한 절규와 같은 그리움이 치솟는 까닭이다. 크게 앞드려 절함은 내 존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비로소 발산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운명처럼 다가오고, 때론 설명될 수 없는 어떤 힘을 부여받는 듯하니, 우리 조상의 열이야말로 우리 삶의 철학이라 감히 말하리라!

파조이신 10世 좌윤공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11世, 12世, 13世, 14世, 15世, 16世 그리고 17世 막내 현령공 할아버지까지 이곳에 함께 터를 잡고 계신다. 무엇보다 고려말, 조선초, 임란(壬亂)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와중(渦中)에서도 우리의 선조 할아버지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했던 그 정신은 지금도 사상적 품위를 유지함에 우리 문중의 자람이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하여! 내 몸에 흐르는 피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자긍심의 발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무릇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는 지엽(枝葉)이 무성하고, 수원(水源)이 먼 물은 흐름이 장구함은 필연적인 이치임을 다 아는 사실이요, 이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말이다. 이곳에서 내 뜨거운 가슴으로 느껴지는 선조를 향한 진한 그리움이 하늘이 되어가는구나 싶다.

# 권보성 보성전기 창업



권갑현 편집위원장

권보성(시조 후 36世, 북야공파)씨가 지난 1월 29일에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4길 16-11에 보성전기라는 상호로 각종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창업하였다. (010-6533-7163)

# 권순용 전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창업

권순용 전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이 2년 전 공직에서 명예퇴직 후 제2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24년 1월 12일 약 74만여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남양주 천마산 자락에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롤링핀” 화도점을 개업했다.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화도IC 출구에서 약 200m, 경춘선 마석역에서도 보 약 10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식자재마트”의 부속건물이다.

권순용 전 사무국장은 명예퇴직 후 고향에는 2400여평을 구입하여 첫 수확으로 추수한 백미 한 가마니를 2021년 추향제에 헌성을 시작으로 지난 3년 동안 시조 추향제 때 직접 농사지는 쌀로 떡을 만들어 헌성했다.

그는 서울서초경찰서 서초2파출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평소 공직에 근무하면서도 대중회와 청장년회 등 안동권문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송조정신을 실천해 왔다.

권행완 편집국장

